광주서 '슈베르트 겨울 여행'의 감동

인문학교육연구소와 필로스팅하우스가 음악감상회 '슈베르트 겨울 여행'을 오는 13일 필로스팅하우스에서 연다. 작년 12월 '김민기 렉쳐 콘서트' 진행 장면. 〈필로스팅하우스 제공〉

인문학교육연구소, 13일 필로스팅하우스서 음악감상회
키메라 프로젝트 음반 감상…콘서트·강의 등 매회 다른 포맷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재즈·포크가 융합된 음악을 만들었다. 지역사회 전통과 이주민의 아픔을 결합한 이 독특한 디아스포라 작품을 '클레즈머(Klezmer)'라 부른다.

이와 맞물려 베이스바리톤 필리프 슬뤼는 슈베르트 '겨울 여행' 전곡을 클레즈머 스타일로 편곡하는 '키메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원곡에 클라리넷, 허디거디(고 현악기)를 가미, 2020년 캐나다 주노상을 거머쥐면서 주목 받았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음반 '겨울 여행' 전편(24곡)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인문학교육연구소(소장 양진호)가 펼치는 음악감상회 '슈베르트 겨울 여행'이 그것으로 오는 13일 오후 7시 필로스팅하우스.

참가자들은 필리프 슬뤼와 키메라 프로젝트가 2019년 'Analekta'에서 발매한 '겨울 여행'을 함께 듣고 감상을 공유하게 된다. 진행은 인문학교육연구소장이자 프로이트, 데카르트 등을 연구해 온 철학자 양진호가 맡는다.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는 "2022년 '양D의 음악세계'라는 주제로 매주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음악감상회로 확장하면서 별도 감상실까지 마련했다"며 "미니 콘서트나 렉쳐(강의) 등 매 회차 다른 포맷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영화 상영·소설 함께읽기를 비롯해 '바흐 마태수난곡' 전곡 영상실황, '비발디 사계-소네트와 함께 듣기', '소리꾼 김율희 특집' 등 30여 회 행사를 펼쳐 왔다. 이외 클래식 감상회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바흐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와 대중가요를 만나는 '김민기 렉쳐 콘서트', '유재하&김현식 특집'을 선보였다.

국내에 '겨울 나그네 D.911'로 소개된 슈베르트 '겨울 여행'은 1828년 출판된 연가곡이다. 뮐러의 시에 노래를 붙인 것으로, 실연을 겪은 한 남자가 눈보라 치는 겨울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묘사했다.

원곡은 1곡 '잘 가오'를 시작으로 '풍향 깃발', '얼어붙은 눈물', '얼어붙음', '보리수', '넘치는 눈물'으로 구성된다. '도깨비 불'이나 '휴식', '우편마차', '이정표', '환상의 태양', '거리의 악사' 등 로맨틱하면서도 강렬한 작품들도 레퍼토리에 포함된다.

편곡한 버전에 대해 양 소장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하는 곡들로 구성돼 있어 개성이 느껴진다"면서 "슈베르트의 낭만과 미학을 키메라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앨범에 담겨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줬다.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 몬트리올의 음악가 펠릭스 드 레투알·사뮈엘 카리에의 학부 졸업연주회에서 시작됐다는 것.

두 사람은 겨울여행 첫 곡 '잘 가오'를 클레즈머풍으로 편곡해 비디오 클립을 남겼는데, 이를 본 필리프 슬뤼가 연락을 취하면서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한다. 이들은 24곡을 나눠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면서도 일체된 결과물을 완성했다. 직접 들어본 키메라 프로젝트만의 버전은 슈베르트의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듯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인문학교육연구소는 스위스 바젤 극장에서 진행했던 '겨울 나그네' 실황 감상회도 광주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안네 소피 폰 오터(메조 소프라노)와 니콜라스 프린시스쿠스(배우)가 선사했던 감동을 오는 행사에서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참가비 1만 원. 문자나 SNS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언어·철학·민주·하루키…인문학 충전

광주시민인문학 123기 강좌 28일까지 전남대 앞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123기 정기 강좌 모습. 〈광주시민인문학 제공〉

1일 개강한 광주시민인문학 123기 강좌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장소는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이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을 제외하고 열리는 강좌는 언어, 철학, 민주, 하루키, 인문 등 다채로운 주제로 펼쳐진다.

월요일(17일)은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 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 '민주시민교육'(5일, 19일) 시간에는 신광용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목요일 '맑스세미나'(13일, 27일) 시간에는 전남대 위상복 명예교수가 '마오쩌둥 '실천론·모순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금요일 '하루키월드'(7일, 21일) 시간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신작 에세이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2''를 매개로 하루키의 문학과 음악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일요일 2일 '인문택시'에는 진정한 이사 등이 당일치기로 호남문화기행(공지)을 진행했다.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목요일 제외)도 오후 7시 카페 노블에서 진행된다.

'슬로우딩: 한강'(4일, 18일), '어프로치일본-'일본인의 행동 문법: 여행을 위한 워밍업'(5일, 19일), '수요테마극장-화가의 삶과 작품'(12일, 26일), '베르그송철학-FT,양자역학'(7일, 21일), '미술독서모임-마크 로스코, 내면으로부터'(1일, 15일), '글쓰기창작반'(도우미 챗GPT)-'삶이 글이 되는 순간, 나도 창작자!'(8일, 22일) 등이 펼쳐진다.

한편 신우진 이사장은 "이번 123기 강좌 또한 철학을 비롯해 언어, 민주, 하루키 등 다채로운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 펼쳐지는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 삶에 대한 사유와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별세

연극 배우로 출발해 드라마·영화서 활약…최근 위암 투병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에서 황준호(위하준 분) 형사의 엄마로 출연한 배우 이주실〈사진〉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소속사 일이삼공컬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이주실 배우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실 배우가 약 3개월 전에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서 검진받았고, 위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날 오전 심정지 후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별세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1965년 연극배우로 데뷔했으며 '세일즈맨의 죽음', '맥베스' 등 여러 연극에 출연해 1970~1980년대 연극계 대모로도 불렸다.

1993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고, 당시 의사로부터 단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 10여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원광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완치 이후로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너의 노래를 들려줘', 영화 '모자산책', '오마주' 등에 출연했다.

마지막 작품은 '오징어 게임2'가 됐다. 고인은 이 작품에서 황준호 형사의 어머니로 열연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5일이다.

/연합뉴스

조희관 수필집 등 문화유산 보존처리

국립나주박물관, 한센병박물관 소장품 '중요사업기록 사진첩' 등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최근 목포자연사박물관 소장품인 조희관의 수필집 '철없는 사람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소장품 '중요사업기록 사진첩' 등 중요 자료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박물관 협력망 강화와 지역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종이로 된 문화유산은 처리 과정이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라 평가받는다.

이번 지원에서 완료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장품인 조희관의 작품인 '철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지류, 금속 8점은 보존처리 후 바로 전시 활용이 가능하다.

한센병박물관의 소록도의 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사업기록 사진첩'은 향후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관장은 "앞으로도 나주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박물관을 비롯해 문화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